시마무라 "페퍼저축은행 블로킹 높고, 공격 루트 다양"

리우·도쿄 올림픽 日 국가대표

NEC 소속 베테랑 미들 블로커
연습경기 상대한 페퍼스 호평
"장 위·자비치 위압감 뛰어나"

NEC 레드 로켓츠 시마무라 하루요(앞)가 지난 20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와 연습경기에서 블로킹 벽을 서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일본 가와사키 전지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 NEC 레드 로켓츠의 부주장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가 연습경기 상대인 페퍼저축은행의 새 시즌 준비에 호평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일본 배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합작했던 시마무라는 페퍼저축은행의 높이와 다양한 공격 루트에 대해 엄지를 추켜세웠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9일과 20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NEC 레드 로켓츠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가졌다. 19일 오전에는 2세트 연습경기를 치르며 0-2(20-25, 24-26), 20일 오전에는 4세트 연습경기를 치르며 1-3(17-25, 18-25, 25-21, 14-25)으로 석패했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두 차례 연습경기 모두 졌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새 시즌을 위한 완성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트윈 타워'를 구축하게 될 장 위와 바르바라 자비치와 함께 박사랑과 이원정, 박수빈 세 세터진의 호흡을 맞추는데 주력했다.

NEC 역시 새 시즌을 준비하는데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시마무라 하루요를 비롯해 2022-2023 시즌 베스트 6 세터 사와다 유카, 2023-2024시즌 베스트 6 세터 츠카다 시오리 등 주축 자원들이 모두 코트를 밟았고, 2024 파리 올림픽 소집 후 휴가를 받은 미들 블로커 야마다 니치카와 아웃사이드 히터 와다 유키코만 제외됐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른 후 "지난 2022년 합동 훈련에는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참가를 하지 못했다. 페퍼저축은행과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리그 3연패를 위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82㎝로 미들 블로커 중에는 단신이지만 스파이크 높이와 블로킹 높이는 모두 3m를 넘는다.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도 장 위와 바르바라 자비치 등 장신 자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점프를 뛰는 모습이었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첫 번째 연습경기에서는 이동으로 인해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다.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 서브 스피드를 비롯해 여러 부분이 훨씬 좋아졌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플레이를 많이 구사했다. 다양한 위치나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놀라웠고, 우리도 배워야 하는 점이었다"고 호평했다.

NEC는 이번 페퍼저축은행과 합동 훈련을 통해 높이 배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리그에서도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장신 선수들이 유입되면서 높이에 대한 공략은 필수가 됐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장 위와 바르바라 자비치의 위압감이 엄청났다. 블로킹 벽을 세우면 공격할 때 괜히 주춤하게 되거나 스파이크를 가능하면 피해서 때리게 됐다"며 "토스가 살짝 내려올 때 블로킹을 집중시켜서 공격을 막거나 서브를 짧게 넣어서 리시브를 흐트러 트리려고 했다"고 복기했다.

장 위와 바르바라 자비치의 트윈 타워와 세터진의 호흡에 대해서도 확실한 장점을 파악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지난 세 시즌에 비해 높이가 강화됨은 물론 더 빠르고 다양한 공격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공격수들이 빠른 스피드로 올라오는 공을 잘 이용한다"며 "블로킹 벽을 활용해 손에 맞혀 아웃시키거나 코트에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공격도 좋다"고 평가했다.

일본 가와사키=글·사진 한규빈 기자

광주은행 배드민턴, 전국연맹종별선수권 메달 2개

혼합복식 銀·단체전 銅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2024 KB금융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메달 2개를 수확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지난 14~21일 전북 정읍국민체육센터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혼합복식 은메달을,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은행 최현범이 일반부 혼합복식에서 윤민아(전북은행)과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현범-윤민아는 32강서 김건국(고양시청)-김빛나(정관장)조를 2-1로, 16강전서 김준영(충주시청)-박지윤(시흥시청)을 2-0으로, 8강서 이민서-이서진(이상 인천국제공항)을 2-1로, 4강서 박경훈-김유정(이상 삼성생명)을 2-0으로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고성현(충주시청)-엄혜원(시흥시청)에 아쉽게 1-2로 졌다.

광주은행은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광주은행은 16강서 충주시청을 3-1로, 8강서 제주도청을 3-0으로 물리쳤으나 준결승에서 당진시청에 2-3으로 석패했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 감독은 "9월 양구대회를 포기하고 이번 대회에 매진했다. 복식은 단련이 돼있지만 단식이 약한 편이라는 팀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단식 위주로 훈련을 했다"며 "대진표를 보고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훈련강도를 높인 점이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현승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 트레이너는 "상위팀들이 즐비하지만 '우리 팀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자극을 준 점과 무더운 날씨에도 쉬는날을 줄여가며 훈련에 매진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다가올 전국체전을 대비해 남은 기간에도 집중해서 훈련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KIA 타이거즈 양현종(왼쪽)이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마치고 동료 선수들로 부터 'KBO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 달성'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최다 탈삼진' 양현종, 이제 최다 이닝·승리만 남았다

개인 통산 2053개… 송진우 추월
3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도 달성

'대투수'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KBO 리그 통산 최다 탈삼진과 3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수립했다. 이제 양현종에게 남은 기록은 KBO 리그 통산 최다 이닝과 승리뿐이다.

양현종은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2차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경기를 마쳤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 1회초 선두 타자 황성빈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 삼진으로 양현종은 이강철 KT위즈 감독과 장원준(전 두산베어스)에 이어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3년 연속 100탈삼진의 기록을 세웠다.

리빙 레전드답게 시작부터 대기록을 달성한 양현종은 다시 한번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나승엽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KBO 리그 역대 최다 탈삼진 타이기록을 달성했고, 3회초 2사 1루에서 윤동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15일 고척 키움전에서 7이닝 동안 삼진 네 개를 뽑아내며 올 시즌 99개, 개인 통산 2046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양현종은 이날 경기 3회초까지 세 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며 송진우 세종원스톤야구단 감독(2048개)을 넘어서게 됐다.

KBO 리그 역대 최다 탈삼진의 주인공이 된 양현종은 앞으로 등판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 4회초에 나승엽과 전준우, 5회초에는 고승민과 황성빈을 상대로 삼진을 추가해 개인 통산 탈삼진을 2053개까지 늘렸다.

양현종은 다음 시즌 KBO 리그 최초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은 물론 KBO 리그 역대 최다 이닝과 승리의 주인공에도 도전한다. 현대 KBO 리그 역대 최다 이닝(3003이닝)과 승리(210승)는 모두 송진우 세종원스톤야구단 감독이 갖고 있으며 양현종은 이날까지 2476.1이닝, 177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전남 복싱 중·고 꿈나무, 대통령배서 기량 뽐내

추도윤 남중 -80kg 金 등
금 1·은 3·동 3개 수확

전남 복싱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제54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했다.

22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복싱협회에 따르면 전남 복싱 중·고등부 선수들이 이날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추도윤(화순중 3년)이 남중부 -80kg급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과시하며 우승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태서(복싱마스터·애향중 3년)는 복싱 입문 9개월 만에 첫 출전한 이번 대회 남중부 -46kg급에서 소년체전 메달리스트들을 물리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42kg급의 장원(전남체중 2년)과 -44kg급의 손현준(전남체중 1년), -52kg급의 최노원(능주중 3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고등부 -48kg급의 정광진(전남체고 1년)과 -54kg급의 최준원(전남기술과학고 2년)은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유성수 전남복싱협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전남 복싱 꿈나무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는 전남 복싱의 미래를 밝게 했다"며 "앞으로 전남 복싱의 발전과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